동국대동창회보

The Dongguk Alumni News / http://www.dongguk.or.kr

2006년(단기 4339년) 4월 28일 제205-1호

발행인 元 容 璇
편집인 宋 在 晩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우의 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은행지로번호 7500891

11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 Tel. 02)733-3991/3 · Fax. 02)733-3992 · 년회비:2만원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제23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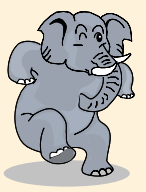
원용선 회장 만장일치 추대 · 취임

송석구 동문의 아름다운 용퇴, 동국의 화합과 단결 부탁

▲ 원용선 동문이 총동창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되자 참석 동문들이 기립박수로 환영했다. (상단우측 : 송석구(좌측) 동문이 동창회의 대 통합을 위해 원용선 동문을 동창회장으로 추대한 후, 원용선 신임회장과 함께 화합하여 발전하는 동창회 건설을 다짐하며 동문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건학 100주년 기념

동국인 한마당 대축제



20만 동국인의 Home-Coming Day · 후배와 동문간 대화합의 장 마련

- **일 시** : 2006년 5월 13일(土) 15시 ~ 20시
- **장 소** : 모교 교내 전역

- **1부 행사**(15:00~18:00) 부서 및 그룹별 만남
  - 다시 여는 사은회
  - 7080사진전
  - 희망 Message Board
  - 동문 스포츠 스타 사인회 및 One Pointing Lesson
  - 테마파크
  - 동국 골든벨을 울려라

- **2부 행사**(18:00~21:00) 동국인 한마당 대화합
  - 세대공감 콘서트
  - 백상응원단과 함께하는 응원 대제전
  - 불꽃놀이
  - 최다참가팀 시상 및 동국가족 추첨 시상

- 가족과 동반하여 동국인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해 참석해 주십시요.
- 자세한 내용은 http://event.dongguk.edu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선 회장 "동창회관 건립을 최우선으로"

동창회 선거규칙 제정, 2007년부터 시행

▲ 원용선 신임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본회 임시이사회 및 총회에서 원용선 동문이 제23대 총동창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 취임했다. 이에 앞서 송석구 회장 직무대행은 "창학 1백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학교와 재단, 동창회가 삼위일체로 동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20만 동국인의 화합과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며 "경선으로 분열되는 동창회의 모습을 동문들에게 차마 보일 수 없어 동창회장 출마를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석구 직무대행은 "저를 지지해주기 위해 참석한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동창회와 학교 발전을 위해 원용선 후배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원용선 신임 회장은 당선 직후 "송석구 선배의 고견을 들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말한 후 "교내 동문회관 건립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현재 총동창회 사무실 건물을 포함해 15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임기 내 5억원을 모금하겠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또 "며칠 전 재단과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6월 착공할 공학관 내 1000평을 동문회관 부지로 약속받았다"고 설명한 뒤 "4월 10일 선출된 류근창 회장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본회는 참석인원 중 162명 찬성으로 선거규칙 제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본회 회장 후보자 등록 시 본회 발전기금 1억원을 납부하고, 당사자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회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발전기금 5억원(보궐선거의 경우 2억원) 이상에 대한 기부 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5억원 이상 중, 1억원은 후보자 등록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 '동국인의 밤' 행사 전일까지 납부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장 당선 효력은 상실된다.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11면〉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위임 170명을 포함해 총 526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취임 인사말

現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現 (주)남양 E&C 대표이사

〈주요약력〉
- 국회의원 비서관
- 유원식품(주) 전무이사
- 동국대학교 ROTC총동문회 회장
- ROTC서울클럽 회장
- 대한민국 ROTC중앙회 부회장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귀 동문님의 健康과 安寧을 기원합니다.

지난 4월 18일 열린 임시이사회 및 총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總同窓會長에 추대를 허락하여 주신, 동문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년 歷史를 간직하고, 20만 同門과 함께하는 東國大學校의 總同窓會 會長이라는 막중한 大任을 맡겨 주신 동문님들의 염원을 받들어,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情熱을 바칠 것을 約束드립니다.

동문님들과 任員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助言과 聲援을 당부 드립니다.

尊敬하는 同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고 이해해주는 아름다운 傳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母校와 財團, 同窓會는 三位一體가 되어 우리의 모교 東國大學校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동창회의 내실을 기하고, 同門相互間에 信賴를 회복하여 和合과 團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20만 동국인의 숙원인 同窓會館 建立의 토대를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현재 모교 및 재단 관계자와 동창회관 건립에 대한 대화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刮目할 만한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들의 世代는 물론 우리들의 후배들이 '東國人' 임을 자랑하고,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동국의 수레'를 끄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先輩님을 존경하는 後輩로 남겠습니다. 또한 後輩를 사랑하는 先輩로 남겠습니다. 사랑과 애정으로 동문회를 끌고 나가겠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健勝하심과 가정에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불비하나마 먼저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림을 惠諒하여 주시기를 仰望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會長 元 容 璇 拜上

학부 3개영역 '최우수' … 종합평가결과는 우수대학으로 선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학년도 대학종합평가 결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은 지난 2월 16일 61개 대학에 대한 2005학년도 대학종합평가 결과와 8개 학문분야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평가에 따르면 대학의 학부과정은 △대학경영 및 재정 △발전전략 및 비전 △교육 및 사회봉사 △연구 및 산학연 협동 △학생 및 교수·직원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로 나뉘어 6개 영역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인정' 세 단계로 나누어 평가했다.

종합평가 결과 61개 대학중 경희대와 고려대 등 8개 대학이 최우수 대학으로 뽑혔고, 모교를 포함한 19개의 대학이 우수대학으로 평가됐다.

학교 측은 "평가결과 1996년 대학종합평가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됐다"면서 이번 대학종합평가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번 평가의 연구 부문에서 우리학교의 학부와 대학원은 모두 '인정'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연구개발팀의 박명호 팀장은 "앞으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연구부문 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종합평가는 결과 발표 시즌 마다 신뢰성 여부를 두고 문제가 되어 왔지만, 평가 방법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종합평가가 검증된 평가체제로 결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교협이 공정성을 유지해 평가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대학도 눈에 보이는 평가만 중요시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학종합평가가 교육환경개선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교협 2005년 대학종합평가 결과

1. 서울캠퍼스 학부

구 분		평가결과(2005년)	비고(1996년)
제1영역	대학경영 및 재정(60)	우수	인정
제2영역	발전전략 및 비전(50)	최우수	인정
제3영역	교육 및 사회봉사(120)	최우수	우수
제4영역	연구 및 산학연 협동(100)	인정	인정
제5영역	학생 및 교수, 직원(90)	우수	인정
제6영역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80)	최우수	우수
종합(500)		우수	인정

2. 대학원

구 분		평가결과(2005년)	비고(1996년)
제1영역	발전전략 및 비전(35)	우수	인정
제2영역	교육(60)	최우수	우수
제3영역	학사 및 논문지도(55)	최우수	인정
제4영역	연구(60)	인정	인정
제5영역	대학원생 및 교수, 직원(45)	최우수	우수
제6영역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45)	최우수	인정
종합(300)		우수	인정

동국발전을 위한 동국인 화합의 장

류근창 고문 " 원용선 동문에게 회장직 물려주겠다"

▲ 정성전 총학생회장, 김성섭 고문, 홍기삼 총장, 류근창 고문, 원용선 회장, 정재철 고문, 이석용 지도위원(좌측부터)

창학 1백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20만 동국인의 화합과 단결로 모교 발전에 전력할 수 있는 체계가 확고해졌다. 본회는 지난 4월 27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호텔에서 원로 동문들과 중진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발전을 위한 동국인 화합의 장' 행사를 갖고 원용선 회장을 총동창회장에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원용선 회장의 동창회장 추대 합의는 지난 4월 10일과 18일 각각 총동창회장으로 추대된 류근창 고문과 원용선 회장의 단일화 논의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단일화 합의는 류근창 고문이 "화합을 위해 후배인 원용선 동문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뤄졌다.

류근창 고문은 "선배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하고 "나를 지지해준 분들은 이것이 모두 동문의 화합을 위해서 한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용선 회장은 "일찍이 없었던 우리 동창회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대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신 류근창 회장님께 최대의 존경심과 경의를 표한다"며 "오늘 대 선배님들께서 만들어내신 대화합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동국인들의 혼이 담긴 명작품이라 생각되며, 이 아름다운 뜻은 영원히 동국인 사회에서 계승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용선 회장은 또 "원로 선배님들을 모시고 모든 동문들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겠다. 그리하여 모교와 재단 동창회는 삼위일체가 되어 우리의 모교 동국대학교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창회의 내실을 기하고 동문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여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한 후, "중요한 사항은 류 회장과 논의해 결정하겠으며, 류근창 고문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교 창학 100주년 기념행사 일정

4월
- 26일~5월 9일 : 시화전
- 28일 : 동국 백년사 발간

5월
- 매주 수요일 : 달빛 연등 콘서트
- 1일 : 건학참여사찰 기념비 제막식/학교 메인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 2~4일 : DMZ 생태학술대회
- 8일 : 100주년 기념식/산학협력관 및 기숙사 기공식/기념우표발행/박영석 동문 히말라야 등정
- 9일 : KBS 열린음악회/동아시아연구소 창립기념 강연회
- 13일 : 동국인 한마당 축제
- 17~19일 : 대동제
- 25~26일 :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국제학술대회

7월
- 3일 : 해외동문자녀 리더쉽 프로그램 시행(7월~8월)

9월
- 11~13일 : 백주년 기념 연극제
- 15일 : 타임캡슐 봉안

10월
- 11일 : 난치질환 국제학술대회

11월
- 3~4일 : 퇴행성질환 국제학술심포지엄

12월
- 5일 : 100주년 기념 갈라쇼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2006년 5월 8일

대화합으로 동국을 빛내자

류 근 창 고문

동문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준비합시다.

온 세상에 풍성한 초록이 내리는 5월, 우리 동국대학교는 건학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0년, 그야말로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명문사학으로 민족의 현대사를 밝히는 횃불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교정을 나선 우리 동문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변치 않아야 할 사명입니다.

동문은 만나면 반갑고 자랑스러워야 하고 동창회는 든든해야 합니다.

동창회는 교문을 나서 외로이 험난한 세상길에 오른 동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고, 모교 발전과 후배들에게 무엇인가 모자란 것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동창회는 누구보다도 먼저 과거를 돌이켜 보며 미래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 동창회는 동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다시 되돌아보며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 모교와 모든 동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동창회의 모습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동창회는 단합되어야 하고 모교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으로 뭉쳐져야 합니다.

저는 최근 일련의 동창회 행사를 통하여, 지금 이 시점이 동문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포용하고 새로운 각오로 동문 곁에서, 모교와 동문들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동창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모든 동문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창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기꺼이 동창회장의 중임을 맡기로 결심한 원용선 동문을 중심으로 모든 동문들이 힘을 합하여, 동창회의 새로운 100년 역사를 준비하고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이 저를 동창회 회장으로 추대해 주셨던 고마우신 동문들의 마음이기도 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울러 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우리 민족을 이끌 우수한 후배를 양성하는데 헌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종단과 재단 역시 세계속의 도량으로서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동국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후배 동문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의 충정어린 마음과 결단이 동창회의 좋은 선례로 남길 바라며 앞으로 동창회가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맑고 바른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100년 역사의 문을 여는 주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미력하나마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4월 27일

류 근 창

임원선거법 및 시행세칙 제정 결의

2006년 1차 임시이사회에서

2006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가 지난 2월 23일 앰배서더호텔에서 40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1호 의안 회장 사임의 건과 ▲제2호 의안 회칙 개정의 건 ▲제3호 의안 임원(회장) 보선의 건이 상정된 이번 이사회에서 ▲회장 사임의 건은 만장일치로 수락을 의결했다.

이어 회칙 개정의 건을 상정하고자 했으나 한 동문이 선거법, 선거세칙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동문들이 찬성하여 선거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하기로 결의했다.

동국 100년둥이 동악의 품에

미래와 세계를 향해 힘차게 도전해야

창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2006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월 24일(경주)과 27일(서울) 각각 열렸다. 서울캠퍼스 3,169명, 경주캠 2,383명이 동국의 백년둥이가 된 올해 입학식에서 홍기삼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1906년 명진학교가 문을 연 이래 지난 100년간 동국을 이끌어온 힘은 도전정신"이라면서 만해 한용운과 인류 최초로 산악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영석 동문의 도전정신을 신입생들에게 역설했다. 또한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와 세계를 향해 힘차게 도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송석구 회장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동국대학교의 건학정신인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절차탁마의 자세를 가지고 학문을 습득하고 좋은 품성을 길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동량재가 되어 줄 것"을 재학생들에게 부탁하며 "여러분들의 이상과 꿈, 그리고 학문탐구를 이곳 동국대학교에서 마음껏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학술교류협정서 체결

학점교환제 운영협약서도 체결하여 실질적인 교류 추진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는 동국대(총장 홍기삼)와 6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총장 정운찬)가 3월 27일 12시 30분 신라호텔 오키드룸에서 양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서를 체결했다.

국내 대학간 학술교류가 특정 학문분야에 국한되거나 학생들의 학점취득에 국한된 소극적 교류에 그쳤던 반면, 이번에 체결된 양대학간 학술교류는 교육·연구·사회봉사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상호 협력 분야의 주요 내용은 ▶ 학생교류 및 상호 학점인정 ▶ 교직원 상호교류 ▶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 학술 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 ▶ 시설물의 상호 이용 ▶ 국제협력사업 공동 수행 등으로 교육·연구·사회봉사 분야 전반에 걸쳐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상호협력을 위한 세부사항은 양교의 학칙과 규정을 따르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상호 협의에 의해 별도로 정하여 시행된다.

불교를 비롯한 동양학과 인문학분야에서 독특한 학문적 전통과 역량을 쌓아온 우리 동국대는 양교의 학문분야가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고, 서울대의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학술교류를 통하여 타 학문분야에도 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져 양교간 실질적인 협력과 발전을 기대한다.

모교는 지난 2월에도 경희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 등 8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삶의 개척자 동국인, 사회로 첫발디뎌

섭심·신실·자애·도세를 펼치자

2005학년도 서울캠퍼스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박사 77명, 일반대학원 석사 207명, 특수대학원 석사 405명, 학사 2,461명으로 총 3,150명이 학위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공로상은 김성진(사회4) 군, 이사장 공로상은 황춘익(불교4) 군, 총장 공로상은 강은선(법4) 양을 비롯한 10명이 받았다.

또한 하인진(식품공4) 군은 총동창회장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지난 2월 20일 문무관에서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버스표 할머니' 평생 모은 1억 모교에 쾌척

이름을 밝히지 않은 70대 할머니가 평생 버스표와 음료를 팔아 모은 1억 1000만 원을 모교에 기증했다.

모교는 "71세 할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현금 1억 원은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은 병원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나는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젊은이들은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장학금을 내놓았다. 특히 불교의 자비정신을 받들어 인성교육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고 모교는 전했다.

그는 또 동국대 일산병원 개원 소식을 듣고 병원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따로 기탁했다. 모교는 이 돈을 병원 건립비에 보탤 계획이다.

이 할머니는 자신을 '서울에 사는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소개했을 뿐 끝내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2002년 9월에도 학교 불상 건립 기금으로 써 달라며 100만 원을 기부했다.

모교는 "할머니가 다섯 아들을 키우며 평생 힘들게 번 돈을 학교에 기부해 감사하다"며 "할머니의 뜻을 기려 장학금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컴퓨터공학과 · 정보통신학과

정통부 NEXT사업에 선정

정보통신부가 정보기술(IT)분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NEXT(Nurturing EXcellent engineers in information Technology)사업에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학과가 선정되 앞으로 3년간 총 24억7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과는 교육기자재 확충, 교직원 충원, 교과목 개발, 교육시스템 개선, 학생 멘토링 및 인턴십 확대 등의 분야에 정부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모교는 3개학과(학교당 최대 3개학과까지 신청 가능)가 신청해 종합1위로 선정되었는데, 선정은 대학이 학과별로 제시한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 교육활동 및 환경, 연구역량과 산학협력활동 등의 교육 요소를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인증평가센터에서 분석해 기술분야, 분야별 신청 현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건학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산학협력관 신축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NEXT사업의 성과는 우리대학 공학분야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영배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새 이사장에

"종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

이사장에 선임된 **영 배**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새 이사장에 영배스님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현해)는 지난 4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제218회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 13명의 이사 중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제외한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5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 이사장 현해스님의 후임으로 상임이사를 지낸 영배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사회 직후 영배스님은 "종단과 학교가 분리된 상태를 마무리하고 종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학교 갈등의 원인은 바로 이사회"라고 지적하고 "총장과 이사장 선임문제로 내부갈등이 산재해 있는 상태이지만 학내 구성원이 각자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배스님은 또 "교육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와 종단 양측이 모두 노력해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영배스님은 "2천만 불자의 병원인 동국대 일산병원을 잘 운영하지 못할 경우 설립취지까지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해 동국대 일산 병원운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배스님은 또 "학교와 종단이 분리된 상태를 마무리해 동국대가 조계종 종립대학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운영과 관련해서는 "동국대 이사가 된 후 상임이사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는 동안 학교 실상을 잘 알 수 있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법인과 학교 관리감독을 충실히 할 생각"이라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신임 이사장 영배스님 약력>

- 1966년 경하스님을 은사로 수계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호법부장
- 11,12,13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현재)
- 제13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현재)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상임이사 역임

미주 '동포사회발전 후원재단' 초대 이사장

이민휘동문 "한인단체 후원과 차세대 지도자 육성 할 것"

한인단체후원과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목표로 전직 단체장 출신의 한인사회 원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다. '동포사회발전 후원재단'이 지난 1월 23일 래디슨 윌셔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이사장에 LA한인회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을 역임한 이민휘(52/56정치·필립정보통신(주) 회장·본회 고문) 동문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이민휘 동문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재단 이사들이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주류사회와 다리 역할을 할 한인지도자를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한인 커뮤니티가 급성장하면서 부조리한 일도 증가하고 있다"며 "동포사회발전 후원재단은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한인사회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세들에게 올바른 유산을 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포사회발전 후원재단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지도자육성 아카데미를 개설해 각 분야별로 재단위원들의 산 경험을 전수하고 △그들을 한인사회 각 단체에 인턴으로 보내 실무를 익히게 할 계획이다. 또 △기금을 마련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단체와 일꾼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한 1세들을 위해 '개척자상·공로상'을 신설, 존경하는 한인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는 이용태 LA한인회장, 이윤복 LA총영사, 허비웨슨 LA 제10지구 시의원, 임용근 오리건주 상원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웨슨 시의원은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과 LA시의원 전부의 서명이 들어간 축하 서한을 전달했다.

경찰동문명단 (총경 이상)

치안총감

▲이택순(99일원(경행))=경찰청장

치안정감

▲어청수(77경행(11기))=경기경찰청장
▲한강택(76경행(10기))=본청 차장

치안감

▲강희락(04.2/행원)=부산경찰청장
▲김석기(89행원)=대구경찰청장
▲김용화(93행원)=본청 수사국장
▲조용연(76경행(10기))=본청 보안국장
▲최광현(71경행(5기))=해양경찰학교장
▲홍순원(71경행(5기))=울산경찰청장
▲홍영기(78경행(12기))=전남경찰청장

경무관

▲김길배(77경행(11기))=경기청 2부장
▲김남성(79경행(13기))=인천청 차장
▲김인옥(97행원)=울산청 차장
▲남형수(75경행(9기))=장관치안정책관
▲박기륜(79경행(13기))=본청 외사관리관
▲박수현(81경행(13기))=본청 외사관리관실
▲박진현(일원(경행))=본청 교통관리관
▲박천화(77경행(11기))=경기청 3부장
▲양성철(77경행(11기))=전북청 차장
▲이성한(79경행(13기))=경북청 차장
▲채한철(80경행(14기))=국방대학원 입교
▲최광화(76경행(10기))=경찰대학교 교수부장
▲최병민(97행원)=경기청 4부장

총 경

▲강성복(84경행(15기))=전남 장성서장
▲강성채(83경행(17기))=경기청 2부 생활안전과장
▲강현신(81경행(15기))=전북청 정보통신담당관
▲구본걸(78경행(12기))=경기청 2부 수사과장
▲구은수(85경행(16기))=본청 경호과장
▲김경수(71경행(5기))=충북청 경무과장
▲김상운(82경행(16기))=강원 영월서장
▲김석구(91행원)=부산 해운대서장
▲김성근(81경행(15기))=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
▲김성렬(78경행(12기))=경기청 경비과장
▲김성배(86행원)=경북청 보안과장
▲김영성(81경행(15기))=충남 당진서장
▲김영효(72경행(6기))=인천 부평서장
▲김운선(80경행(11기))=경찰대 총무과장
▲김인택(79경행(13기))=서울 방배서장
▲김종량(일원(경행))=본청 청와대
▲김효원(77경행(11기))=경찰대 치안연구소 연구실장
▲박광순(82경행(13기))=경기 분당서장
▲박명렬(70경행(4기))=전북 남원서장
▲박병국(일원(경행))=서울청 보안1과장
▲박봉기(78경행(12기))=전남 광주광산서장
▲박외병(01/행원)=경기 구리서장
▲박웅규(95행원)=서울청 수사과장
▲박종국(77경행(11기))=경기 고양서장
▲박종수(행원)=강원청 정보통신담당관
▲박종한(78경행(9기))=충남 대전북부서장
▲박청규(77경행(11기))=본청 정보통신2담당관
▲배효갑(95행원)=강원 인제서장
▲백동산(80경행(11기))=경기 수원중부서장
▲서천호(02행원)=본청 감찰담당관
▲성동민(87교원)=경기 일산서장
▲손창완(77경행(11기))=본청 홍보담당관
▲신동건(81경행(11기))=부산청 수사과장
▲신동곤(77경행(11기))=본청 면허관리과장
▲신두호(98행원)=본청 정보1과장
▲신상석(82경행(16기))=경기청 생활안전과장(4부)
▲신용선(77경행(11기))=서울청 교통안전과장
▲신정배(77경행(11기))=서울 동부서장
▲신찬섭(74경행(8기))=충남 홍성서장
▲심상인(70경행(4기))=경기 부천남부서장
▲심수식(94. 8행원)=울산 서부서장
▲안승환(84행원)=경남청 보안과장
▲안억진(71경행(5기))=충남청 경비교통과장
▲양두환(79경행(13기))=부산 서부서장
▲엄용흠(82경행(13기))=본청 교통관리센터장
▲오경종(70경행(4기))=부산 북부서장
▲유현철(82경행(16기))=서울청 광역수사대
▲윤대표(76경행(10기))=서울 서초서장
▲윤동길(77경행(11기))=전남 목포서장
▲윤종기(83경행(17기))=서울 혜화서장
▲윤철규(82경행(16기))=서울 종로서장
▲이강덕(행원)=본청 혁신기획과장
▲이강순(81경행(15기))=경기청 기동대장
▲이광영(70경행(4기))=대구 달서서장
▲이금형(02행원)=서울 마포서장
▲이봉행(일원(경행))=본청 호주주재관
▲이성규(78경행(12기))=본청 총무과장
▲이승길(82경행(16기))=전남 순창서장
▲이익하(73법학)=충남 공주서장
▲이재열(83경행(17기))=강원청 청문감사담당관
▲이재영(78경행(12기))=경기 남양주서장
▲이종복(88행원)=충북 음성서장
▲이종원(79경행(13기))=충남청 생활안전과장
▲이태선(73경행(7기))=대구 동부서장
▲이평오(79경행(13기))=전북청 수사과 강력계장
▲이한명(76경행(10기))=서울 남부서장
▲이한일(86경행(17기))=충남 아산서장
▲이환섭(75경행(9기))=인천청 생활안전과장
▲임국빈(85경행(16기))=본청 수사국(인권보호센터)
▲임승택(78경행(12기))=본청 경비1과장
▲장세원(행원)=전남 담양서장
▲장전배(일원(박사수료))=서울 중랑서장
▲전병량(72경행(3기))=강원 춘천서장
▲전석종(81경행(15기))=서울청 정보2과장
▲정순도(81경행(12기))=서울 강북서장
▲정은식(03행원)=경북 의성서장
▲정해룡(82경행(16기))=서울 성동서장
▲조규철(83경행(14기))=본청 외사3담당관
▲조기준(77식공)=경남 산청서장
▲조정래(01행원)=울산 남부서장
▲진정현(76경행(10기))=인천 남동서장
▲최성철(76경행(10기))=본청 대테러센터장
▲최원일(82경행(16기))=경기 화성서장
▲최원태(00행원)=본청 인사과장
▲최종덕(79경행(13기))=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최현락(02일원)=본청 정보국
▲한기옥(71경행(5기))=강원 속초서장
▲한달우(01행원)=충남 천안서장
▲한상익(71경행(5기))=충남 보령서장
▲한창호(70경행(4기))=경기청 생활안전과장
▲허남석(98.2행원(59기))=경기 의정부서장
▲허영범(85경행(16기))=본청 특수수사과장
▲홍익태(82경행(16기))=서울 노원서장
▲황성채(94행원)=경기청 정보통신과장
▲김상근(77경행(11기))=교육(경북청 경무과)
▲나유인(81경행(15기))=교육(전북청 경무과)
▲안중익(81경행(15기))=교육(경기청 경무과)
▲이상원(81경행(15기))=교육(서울청 경무과)

同門동정

本人의 근황이나 주위 동문들의 여러 소식 등을 언제라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기념회 및 전시회

▲최재복(52/57국문·본회 지도위원)동문은 지난 3월 22일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에서 '멀고먼 여로' 출판기념회 및 전시회를 열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

▲윤형두(55/63법학·범우사 대표)동문은 지난 3월 27일 열린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10대 이사장에 선출됐다. 윤형두 이사장은 지난 1966년 범우사를 설립한 이래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출판학회 회장,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시 문화상, 국민훈장 석류장, 보관문화 훈장, 간행물윤리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는 《한국출판의 허와 실》《산사랑 책사랑 나라사랑》《옛 책의 한글판본》 등이 있다.

신행개혁청정운동 발대식

▲송석구(58/62철학·대한불교진흥원 이사·본회 고문)대한불교진흥원 산하 청정운동추진위원장은 지난 3월 29일 조계사에서 '불자다운 삶을 위해 나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가자'는 신행개혁운동인 청정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국희곡작가협회 이사장

▲김흥우(60/64연영·前 모교 교수·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2월 1일 한국희곡작가협회 제2대 이사장에 선출됐다. 김 이사장은 모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연극학을 전공하고 극단 신협 대표, 한국문인협회 희곡분과 회장, 한국연극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북한 보현사에서 기념법회

▲홍기삼(62/66국문·본회 고문)총장은 지난 3월 13일 북한으로 출국해 묘향산 보현사에서 '동국대 건학 100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보현사는 북한 최대 사찰로 100년 전 동국대 전신인 '명진학교' 창학을 주도한 전국 17개 사찰 중 한 곳이다. 이번 방북은 조선불교도연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에 재선임

▲송영인(63/67통계·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2월 7일 개최된 2006년 자유시민연대 총회에서 공동대표에 재선임됐다.

한편, 송동문은 지난 2월 28일 자유개척청년단 등 25개 애국단체 대표들과 함께 과거사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롯데호텔 제주 총지배인

▲김승웅(64/72경영·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2월 16일 롯데호텔제주 신임 총지배인으로 취임했다. 김 동문은 충북 음성 출신으로 모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관광행정 관련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관광경영 전문가이다.

1979년 롯데호텔 입사 후 롯데호텔 판촉부장, 롯데월드 이사를 거쳐 2002년부터 부산 롯데호텔 총지배인으로 재직해왔다.

출판기념회 개최

▲박태권(65/75정외·(사)한국정치발전연구회 사무총장·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3월 1일 천안 컨벤션센터에서 '브랜드 충남 세계 브랜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부회장

▲김평기(66/73경제)동문은 지난 3월 15일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김 신임 부회장은 위아, 메티아(옛 아주금속), 위스코, 아이아, 현대오토넷 등 현대차그룹 5개 계열사 경영을 총괄하게 됐다. 김 부회장은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현대자동차써비스㈜에 입사해 현대정공 전무, 기아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냈다.

미주 한국일보 지사 확대

▲오재관(67/71농경·한국일보 달라스지사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1월 3일 휴스턴지사를 통합, 흡수하는 한편 어스틴 지역에도 지국을 설립했다. 이로써 한국일보 중남부 미주판은 텍사스주 내 양대 도시와 주를 모두 포괄하는 범 텍사스 한인신문으로 한단계 진일보했다.

대학생불교연합회 춘계수련대회

▲성기태(70/74토목·충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회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일대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2006년도 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네팔 명예총영사

▲연기영(71/75법학·모교 법대교수)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신당2동 지산타운에 개관한 주한 네팔 명예총영사관의 명예총영사로 임명돼 개관식과 취임식을 동시에 가졌다.

HMA 최고경영자 겸 법인장

▲고옥석(72/79무역)동문은 지난 1월 17일 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인 현대모터아메리카(HMA) 최고경영자(CEO) 겸 법인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모교 무역과를 졸업한 신임 고 법인장은 현대차 계열사로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현대트랜스리드 법인장을 거쳐 지난해 8월 HMA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스테인리스스틸클럽 신임 회장

▲고창서(73/80전기·비앤지스틸 상무)동문은 지난 1월 16일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 고 신임 회장은 모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현대INI스틸에 입사했으며 2000년 비앤지스틸로 자리를 옮겼다. 1996년 설립된 스테인리스스틸클럽은 포스코와 현대INI스틸, 비앤지스틸, 대한전선 등 6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남요원(81/88철학·계간 환경과 생명 발행인·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3월 17일 열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미술세계작가상 수상기념 초대전

▲전종무(81/85미술·(사)서울미술협회 이사)동문은 지난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세한빌딩에서 미술세계 작가상 수상기념 초대전을 열었다.

거금도농협 조합장 취임

▲박두영(84/88농경)동문은 지난 3월 21일 제13대 거금도농협 조합장에 취임했다. 신임 박두영 조합장은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통해 친환경농법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새로운 고소득 작목 개발과 보급에 전력하겠으며, 농산물은 조합이 책임지고 판매하여 제 값 받고 파는 농산물, 소비자가 찾는 농산물을 만들어 조합원이 잘 사는 거금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경주김씨 중앙종친회 신임 총재

▲김일윤(86.3/92.2일원·경주대학교 총장·본회 부회장)동문은 지난 3월 13일 열린 경주김씨 중앙종친회 총회에서 신임 총재로 선임됐다. 김 신임 총재는 경주 박달 출신으로 지난 81년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설립했으며 경주지역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경주김씨 종친회는 현재 전국에 175만명의 회원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판기념회 개최

▲정우식(88/93철학·종로생각 대표·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지난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가슴에 아로새긴 목민심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동국대학교 인사

경주캠퍼스

▷부총장 김용택
▷불교문화대학원장 겸 불교문화대학장 이행구(도업)
▷사회과학대학원장 겸 법정복지대학장 김선정
▷인문과학대학장 배의용
▷사범교육대학장 진대호
▷과학기술대학장 이태경
▷상경대학장 겸 관광대학장 허형도
▷국제교육원장 조영석
▷사회교육원장 우성기
▷기획처장 손동진
▷교무처장 이한구
▷학생처장 강문호
▷박물관장 이점원
▷교양교육운영실장 김세곤
▷방송국장 겸 동대신문사부주간 정길상
▷연구지원실장 김민
▷부속유치원장 직무대리 황옥자

서울캠퍼스

▷행정대학원 및 사회과학대학 행정지원실장 최응렬

중앙도서관에 박영석동문 동판부조 제막

동아일보 2005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모든 산악인의 꿈인 산악그랜드슬램을 세계 최초로 달성한 박영석(83/91 체교) 동문의 동판부조 제막식이 지난 3월 21일 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동판부조는 박영석 대장의 불굴의 도전정신을 후배 학생들에게 전해주기위해 제작되었으며, 2000년 7월 30일 브로드피크(8074m) 정상 등정의 순간이 담겨져 있다. 브로드피크 정상 배경 뒤에는 히말라야 14좌 완등의 대미를 장식한 K2봉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동판의 크기는 가로 315.5 × 세로 194cm로 모교 명예교수인 조승환교수가 제작했다.

제막식에 앞서 열린 동국대학교 건학100주년 기념 '히말라야 횡단 원정대'의 발대식에는 모교 홍기삼 총장, 골드윈코리아의 성기학 회장, LIG손해보험의 이기영 대표, 이인정 대한산악연맹회장, 최홍건 한국산악회장, 허영만 화백 등이 참석하여 박대장과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함께했다.

원정대는 3월 25일 출국하여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에 통일을 염원하는 불상을 봉안하고 히말라야 횡단 등반을 시작했다.

한편, 박영석 동문은 지난 3월 15일 동아일보사가 선정한 2005 올해의 인물로 선정돼 기념패를 수상했다. 지난해 북극점에 도달해 히말라야 8000m급 14좌와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 및 지구 3극점(남극점, 북극점과 에베레스트) 도달을 이뤄 내는 산악그랜드슬램을 세계 최초로 달성했다.

관음종, 美해병대초청 세계평화기원 대법회 봉행

내년 4월에는 뉴욕서 대규모 천도제 계획

▲ 홍파 총무원장

미국 샌디에고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오션사이드 비치 야외 음악당에서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홍파스님·63/67불교·본회 부회장, 중앙신도회장=최윤섭·68/72수학·(주)후림 회장·본회 분과위원장) 주최로 열린 '세계평화 기원 대법회'가 지난 3월 9일 열렸다.

미국 군부대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라 미 해병대사령관 콜로넬 존 컬맨과 훈련소장 J. M. 팩스톤, 해병대 전우장학회 이사장 찰스 버긴 그리고 LA와 샌디에고의 미주 한인 불자 등 5백여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음악당 무대 중앙에 대형 궤불이 설치되고 좌우에 대형 번 10개, 무대 좌우로 작은 번 40여개가 설치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천도 법회에서는 관음종 인봉 스님 등 10여 스님들이 바라춤과 나비춤을 선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모교 최윤희 교수의 관음무, UCLA 김동석 교수가 이끄는 국악단의 사물놀이 공연, 연합불교합창단의 찬불가 음성공양 등이 펼쳐졌다.

처음보는 한국불교의 영산대재 의식을 지켜본 미국인들은 객석에서 "원더풀(Wonderful)과 뷰티풀(Beautiful)"을 연발하며 눈과 귀를 무대로 고정시켰다. 법회가 끝나자 찰스 버긴 이사장은 "50여년전 한국전에 참전해 사찰을 방문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한국 스님들의 엄숙하고 숭고한 이번 의식을 통해 전몰 장병들이 전쟁없는 세상서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뻐했다.

행사를 주관한 홍파 스님은 "내년 4월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으로 정식 사업 계획에 상정해 9.11 테러가 일어난 뉴욕의 제로 그라운드에서 대규모 천도제를 봉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파 스님은 행사가 끝난 뒤 찰스 버긴 이사장에게 한국전 참전용사의 유가족들에게 써달라며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재주 동문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

도민의 건강과 행복위한 도정 수행

국민중심당 소속의 김재주(61/65정외·前 의령군수·본회 부회장) 동문이 지난 3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김 동문은 "수십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많이 배웠다"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 행복을 책임지고, 도민에게 돌려주는 탈바꿈하는 도정을 수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동문은 ▲농가부채 책임 ▲벼 생산은 도 예산으로 전량 수매 ▲아파트 생활하는 여성과 각급 여성단체 회원들 중 공무담당자로 채용 ▲도내 위치한 고교와 대학졸업자 중 공무원 특별 임용 ▲권역별 노인 실버타운 건설 ▲관광단지 개발 확대 ▲세계 올림픽 유치계획 ▲장애자 복지시설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함양 출신인 김 동문은 함양 중·고교와 모교를 거쳐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공무원으로 출발, 경남도공무원교육원장과 의령군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무 등을 역임했고, 새천년민주당과 국민회의 등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한국정토학회 신임회장 보광스님

한국정토학회 신임 회장 보광스님(71/75불교·모교 선학과 교수·본회 부회장)의 취임법회가 지난 3월 24일 남산타워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前 정토학회장 법산 스님과 정토학회 이사 설산 스님,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 등과 사부대중 20여명이 참석했다.

보광 스님은 취임사에서 "한국불교의 신앙성 회복을 위해서 정토학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토신앙의 사상적 토대 마련과 함께 염불수행 대중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서는 설산 스님 미수기념논집 〈정토학 연구〉 8집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이번 논문은 '불교신앙의 자력과 타력의 문제'라는 주제로 '정토의 자력과 타력' '선의 자력과 타력' 등의 논문 4편이 수록됐다.

지난 1998년 재 창립한 정토학회는 스님과 교수, 재가자 등 2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정토문화·예술 등을 연구하는 광범위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여신금융협회 유인완 동문

한국여신금융협회 제4대 회장 유인완(64/68경영) 동문.

모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일은행 비서실장과 동경지점장을 지냈으며 91년 서울증권 전무이사를 지냈다.

97년에는 서울증권 부사장에 올랐으며 한일투자신탁운용 사장과 중부리스금융 사장을 거쳐 2001년부터 한국캐피탈 사장을 맡고 있다.

유 회장은 회장직 취임 이후 신용카드 불법가맹점 삼진아웃제 시행과 신용카드 가맹점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채권을 가압류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도 렌탈업 등 10개 업무를 여신금융사 업무에 포함시켜 영업여건을 개선했으며 등록여전사간 자금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등 여신금융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힘쓰고 있다.

유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한국캐피탈도 유 회장 취임 이후 수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익다변화를 위해 신기술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 매입 등 다양한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다.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며 골프는 싱글 수준.

북미주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골프대회

창학 100주년 사업설명 큰 호응 얻어

북미주총동창회(회장=김경재·65/69농학·본회 부회장) 2006년도 정기총회 및 골프대회가 지난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LA에 위치한 JJ GRAND HOTEL과 LOS VERDES GOLF 및 COYOTE HILLS GOLF에서 열렸다.

본회 송재만 사무처장과 김병식 부총장, 이관제 대외협력처장 등 방문단은 정기총회 행사 중 건학 100주년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식 부총장은 그동안 모교의 발전에 힘을 보태준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동문들을 5월 8일 100주년 개교기념식에 초청했으며, 이에 많은 동문들이 함께 참석해 뜻 깊은 100주년 기념식을 만들자며 화답했다.

미국 LA, 뉴욕, 워싱턴, 애리조나, 시카고, 캐나다의 벤쿠버와 토론토 지역의 동문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동국발전을 위한 모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자신의 꿈 실현위해 노력하는 동국인이 되길

동우장학회 20명에게 장학금 지급

총동창회 산하 재단법인 동우장학회(이사장=황명수·49/53정치·아산기획 회장·본회 고문)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0시 모교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재학생 20명(서울캠퍼스 12명·경주캠퍼스 8명)에게 1천4백만원(1인당 7십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황명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장학금이 여러분들에게 자극제가 되어 학업에 더욱 정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후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최선의 노력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홍기삼 총장은 "우리 동국대학교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가 세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모교는 제도적으로 정확한 학사 행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공부해야만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대학의 본질인 학문탐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학금 수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서울캠퍼스

▲이시윤(선학전공 3년) ▲신윤주(철학과 2년) ▲김윤진(수학전공 3년) ▲장철순(법학과 4년) ▲조현진(행정학전공 4년) ▲주현재(경영학전공 3년) ▲이민형(산림자원학과 3년) ▲송인선(토목환경공학과 2년) ▲이성준(컴퓨터공학전공 4년) ▲박승용(가정교육과 2년) ▲정경윤(문예창작학과 3년) ▲이학준(연극영화전공 2년)

▣ 경주캠퍼스

▲유은경(불교학전공 2년) ▲유지용(일어일문학전공 4년) ▲류준우(화학전공 4년) ▲최진혁(컴퓨터학전공 3년) ▲서정민(국제관계학전공 3년) ▲김민영(법학과 3년) ▲이성덕(경영학전공 3년) ▲정용혁(관광레저개발전공 4년)

이상 20명 (서울캠 12명/경주캠 8명)

김성호 불교대학원동문회 신임회장 취임

"이 세상을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인도해야"

▲ 김성호 신임회장

불교대학원동문회는 지난 3월 16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2006년 총회 및 회장 이·취임법회를 가졌다. 신임 회장에 취임한 김성호(91.9/93.8불원·불교미술관 관장·본회 상무이사)동문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가 동문회를 조직하여 모임을 갖는 것은 친목을 도모하고자만이 아니고, 우리의 뜻을 모아 힘을 키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인도하자는 데 그 큰뜻이 있다"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대신 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주인임을 더욱 확실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봉사한 만큼 우리 이웃은 따뜻해지고 밝아진다. 우리가 힘을 모아 세상을 이끌어 가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각오로 동문회를 새롭게 가꾸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성호 신임회장은 △신행상담위원회 개설 △불교상담원 개원 △결혼상담원 개원 △동문회 홈페이지 설치 △동문회 사무실 이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ROTC동문회 정기이사회 개최

ROTC동문회(회장=강병국·64/68농경·세교산업(주) 대표이사·본회 부회장)는 지난 3월 23일 양재동소재 스포타임에서 2006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06년도 사업계획과 ▲故 김범수대위 기념사업의 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고양시 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고양시동문회(회장=이현중·57/61영문·현대에뜨레보관리단 관리사무소장·본회 부회장)는 지난 2월 22일 현대에뜨레보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동문회의 발전을 논의했다.

오홍명 동문 농학과동문회 신임회장에 선출

▲ 오홍명 신임회장

농(식물자원)학과동문회(회장=윤천영·59/66농학·사회복지법인 오류애육원 이사장·본회 부회장)는 지난 3월 31일 모교 문화관그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오홍명(62/66농학·농업컨설턴트 대표·본회 상무이사)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윤천영 전 회장은 농학과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와 50주년 기념집 및 주소록 발간,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사업으로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송달용(54/58농학·前 파주시장·본회 지도위원), 황응수(54/58농학·창원황씨대종회 부회장·본회 상무이사), 이순주(56/60농학·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 김찬경(64/03농학·본회 상무이사), 이신백(70/75농학·현대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노창현(66/73농학·한국도예고등학교 교장) 동문 등 50 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동문회 육기동 신임회장선출

▲ 육기동 신임회장

전북동문회(회장=김삼룡·54/56불교·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소장)는 지난 2월 21일 전주종가집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육기동(61/65식공·(주)팔마 대표·본회 상무이사)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선거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임원 등 선거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칙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함) 임원 등 선거규칙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9조 제1호 규정의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선거방법)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회칙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 추대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대한다.

제4조 (선거관리)
1) 이 규칙에 의한 선거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선거권) 선거일 10일전 현재 본회 이사회 구성원은 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제6조 (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인명부는 본 회에서 발행한 임원수첩의 기재로 가름할 수 있다.

제2장 후보자 등록

제7조 (등록신청)
1) 회장, 감사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후보자 등록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력서, 서약서 및 제8조 규정의 후보자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하여야 한다.

제8조 (후보자 자격요건)
1) 본회 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2) 본회 회장 후보자는 등록 시까지 본회가 본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명시한 별첨 서약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제9조 (등록무효 및 사퇴)
1) 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8조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2)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공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이를 동창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수리된 때
2.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 때
3.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한 때

제3장 선거일정 및 선거운동

제11조 (선거일정의 결정 및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선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원의 선거에 대한 일정을 결정하고 이를 동창회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2) 임원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의 경우 임기만료 30일전, 회칙 제12조에 의한 보선의 경우는 보선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하여야 한다.

제12조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

제13조 (선거운동의 방법)
1) 임원 후보 등록자는 자기의 학력, 경력 및 후보자로서의 소견을 기재한 서신을 선거운동 기간중 2회에 한하여 회원에게 우편, 문자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2) 회장 후보등록자는 선거당일 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3) 임원 후보 등록자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른 후보 등록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선거절차

제14조 (진행순서) 선거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선거안건의 부의 선언
2. 회장 후보자의 소견 발표
3. 투표
4. 개표
5. 당선자 결정 및 선포

제15조 (투표 방법)
1) 투표는 임원 종류별로 실시한다.
2)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한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 (투표 용지)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하고 본회의 인장을 압날 하여야 한다.

제17조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 투표소 및 개표소는 본회 이사회 개최 장소에 설치한다.

제18조 (투표용지 배포)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입회하에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선거인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제19조 (개표 방법)
1) 개표는 투표가 종료되면 개시한다.
2) 개표는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사무국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한다.

제20조 (투표의 효력)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2) 후보자 성명중 2자 이상을 정확하게 기재한 투표는 유효로 한다.
3)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또는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21조 (선거참관)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2) 임원후보자는 후보 등록시 각 3인 이내의 선거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선거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당선 결정

제22조 (무투표 당선)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경합이 없는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한다.

제23조 (당선자 결정) 임원 후보자중 유효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4조 (결선 투표) 회장 후보자에 대한 선거에서 개표결과 동수 득표자가 나올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당일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제6장 추대위원회

제25조 (추대위원회)
1) 등록 마감일까지 임원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대위원회에서 임원을 추대한다.
2) 추대위원회는 회장이 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임부회장단의 자문을 거쳐 본회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 10인 이내의 추대위원으로 구성한다.
3) 추대위원회는 추대위원 호선으로 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위원장의 주재로 임원추대 임무를 행한다.
4) 추대위원회는 제8조에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원을 추대하고 이를 지체 없이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추대는 효력이 없다.
5) 이사회는 추대위원회로부터 임원으로 추대된 자에게 제8조 규정의 자격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추인하여야 한다.
6) 추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 (당선무효) 회장 당선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 발전기금 기부 약정 내용을 당해 년도 동국인의 밤 행사 전일까지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시부터 회장 당선자의 당선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7조 (낙선자에 대한 조치) 낙선한 후보자가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후보자 등록시 기부 약정한 발전기금 5억원 중 납부한 1억원은 낙선한 후보자측의 기부자 각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제28조 (재선거)
1)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2. 제26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로 된 때
2) 제1항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재선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보궐 선거)
1) 임원 등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사 3명중 1명의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한 보궐선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이의 신청)
1)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2) 제1항 신청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 선거활동, 선거절차 또는 당선 결정이 이 회칙 및 이 규칙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 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회장에게 보내야 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여 그 가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5) 이사회가 제2항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적회원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위 결정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6) 선거 또는 당선무효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장은 이를 신청인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동창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무효의 결정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선거규칙 제4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능) 위원회는 회칙, 임원등 선거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2)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 한다.
3) 제1항에 의한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을 때와 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한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규칙 제30조 제1항에 의한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가 규칙 제30조 제4항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의사록 및 보고)
1)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지명된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1) 위원장은 회 사무처직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무감사) 감사는 위원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일체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정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장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서약서

1. 본인은 회장 후보자 등록시

가. 본회 회관 건립기금 또는 본회 운영 보조금 등으로 사용할 본회 발전기금 1억원을 납부하고

나. 본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본회 회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본회 발전기금 5억원 이상에 대한 기부 약정서를 제출한다.
다만 기부 약정한 위 발전기금 5억원 이상 중 1억원에 대하여는 후보자 등록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 동국인의 밤 행사 전일까지 납부한다.

2. 본인이 제1항 나호 단서 후단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회 임원 선거규칙 제26조에 따라 본회 회장으로서 당선은 그 효력이 상실됨을 인정한다.

보궐선거 회장 후보자 자격에 대한 서약서

1. 본인은 보궐선거 회장 후보자로서 후보자 등록 시

가. 본회 회관 건립기금 또는 본회 운영 보조금 등으로 사용할 본회 발전기금 1억원을 납부하고

나. 본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본회 회원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본회 발전기금 2억원 이상에 대한 기부 약정서를 제출한다.
다만 위 발전기금 2억원 이상은 당해연도 동국인의 밤 행사 전일까지 납부한다.

2. 본인이 제1항 나호 단서 규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회 임원 선거규칙 제26조에 따라 본회 회장으로서 당선은 그 효력이 상실됨을 인정한다.

박 충 일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장

희망의 동불을 더 많은 이들에게 더 오래 밝히고자

1950년대 모교 동국대 재학시절. 그는 이미 인쇄에 손을 댔다. 법학도였던 그가 판사가 아닌 인쇄인이 될 줄이야. 부친의 죽음으로 가족부양을 위해 학내 인쇄소에서 근로장학생을 지냈던 잠깐의 인연이 그 출발이었다. 박충일(56/62법학·본회 부회장)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장.

고희를 넘긴 박동문은 50여년 평생 인쇄라는 한 우물만 팠다.

1953년 봄. 경남 거창서 농업고를 졸업한 청년은 상경하여 동국대학 법학도가 되었다. 판사가 되려고 불철주야 고시 공부에 열을 올렸던 그는 교양강좌인 불교학개론과 불교문화사를 접하면서 불교에 눈을 떴다. 그런던 중 고향서 갑작스레 아버지의 부음이 들려왔다. 등록금 조달은 물론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부양해야할 처지가 됐다. 당시 동국대 학사처장이었던 故 조명기 박사는 그의 딱한 형편을 지켜보면서 학내학보인 동대신문의 편집기자직을 권했다. 낮에는 학과공부, 밤에는 신문편집에 매진했던 그는 근로장학금으로 한달에 3천원씩 받았다. 그러다 신문방송학과 개설을 앞두고 학교법인의 재단직영 인쇄소가 생겼다. 관심이 쏠렸던 그는 인쇄소에 발을 돌렸고, 경쟁률이 높았던 근로장학생에 선발됐다. 김희옥 법무부 차관, 송석구 전 동국대 총장, 정용길 교수 등이 당시 그와 함께한 인쇄소 도반들이다. "인쇄소에서 18개월간 견습과정을 마치고 공장장까지 지냈지요. 인쇄와의 인연은 물론 당시 조계종 총무원 서무국장을 맡았던 광덕스님과의 인연도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대학졸업 3년만인 1965년부터 인쇄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박 회장은 신흥인쇄를 세웠다.

1972년 창사 7년만에 마침내 일이 터졌다. "언론탄압정책으로 신문사는 인쇄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폐간하기로 법이 제정됐지요. 그 바람에 한국불교 유일의 불교신문이 세 번이나 폐간 조치를 받았습니다. 급기야 총무원 총무부장인 광덕스님은 신흥인쇄를 폐사시키고 대한불교신문사 공무국으로 전환하여 불교유일의 표교지인 대한불교신문의 폐간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박 회장은 망설임 없이 응낙했다. 불교신문 공무국 현판식 날.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석주스님과 총무부장 광덕스님, 교무부장 월주스님, 서돈각 동국대 총장 등은 박 회장에 고마움을 표하고 격려했다. 평범한 인쇄회사가 하루아침에 불교신문 공무국으로 돌변하자 기존 거래처 사람들 중 타종교인들은 두말없이 등을 돌렸다. 그럼에도 박 회장은 대한불교신문 공무국장임을 입증하는 그 당시의 신분증을 신주단지 모시듯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박 회장은 신분증 속 미남청년인 자신의 옛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광덕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은 70평생 내 인생의 나침반이나 다름없다"는 그는 만삭인 아내와 함께 뚝섬에서 나룻배를 타고 봉은사에 법문을 들으러 다녔다. "주말 대각사는 광덕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찾아온 인파로 종로거리까지 사람들이 흘러넘쳤고요. 스님의 법문은 아주 평범한 지리였지만 우리 부부에겐 유일한 삶의 희마이었지요"

그 희망의 등불을 더 많은 이들에게 더 오래 밝히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법문을 활자화하는 작업이었다.

지금까지도 발행되는 월간잡지 불광의 탄생이다. 1974년 11월 마침내 박 회장은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뜨끈한 법문집 불광을 들고서 스님에게 달려갔다. "너도 이제 법사가 됐다. 한권의 책은 한 사람의 법사나 마찬가지라 웃으며 책을 받아들고 어깨를 다독여줬던 스님의 손길이 참 따스했다"며 박 회장은 당시를 회고했다.

광덕스님과의 에피소드는 끝이 없다. 위에 탈이 난 스님이 혼자 절방에서 떼굴떼굴 구르며 심한 통증에 죽어갈 때, 스님을 등에 업고 서울대 병원까지 달려가 수술대에 올라 위를 절개하는 모습까지 지켜봤던 그다. "지금 생각하면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가난으로 얼룩진 암울한 시대에 스님이 내 곁에 없었다면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불광사에 부처님 성상을 모시는 인연을 허락해 주신 스님, 그 영광과 은혜로 지금도 이렇게 제 밥값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박회장의 명함에는 대한인쇄문화협회장,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장 외에도 범국민직지회장이란 명칭이 붙었다. 이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직지를 반환하는 운동을 펼치고 직지를 통해 인쇄종주국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우리 민족의 문화적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해온 데 따른 이름이다.

직지가 인쇄된 장소인 청주 흥덕사지에 1992년 3월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세워지면서 본격화된 직지운동으로 10여년만인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설을 뒤집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국가임을 세계로부터 공인받게 됐다. 직지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관광지에 머물러 있는 흥덕사지가 아닌, 인쇄의 생명이 꿈틀대는 도량으로 다시 살아나길 발원했다.

식품공학과동문회 정기총회

식공인(食工人)의 날 제정, 장학기금 조성

식품공학과동문회(회장=장영상·66/73식공·중부대학교 교수)는 지난 2월 17일 모교 상록원에서 하덕모 은사님, 신효선 은사님과 식품공학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졸업생 및 재학생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식품공학과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영상 회장은 전임 회장인 조희재(63/67식공·본회 상무이사)동문에게 공로패를, 모교 장학기금 조성에 500만원을 쾌척한 이유상(66/73식공)동문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또한 식품공학과 동문 임시주소록 100부를 배포했으며, '식공인(食工人)의 날을 제정하여 선포(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하는 한편, 동문체육대회(식공의 날 동시 진행), 동문(선배)초청 세미나 개최(년1회) 및 식품공학과 50주년 기념행사 준비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식품공학과 발전기금으로 박용철(62/69식공·호전실업(주) 대표)동문과 송래섭(66/70식공·(주)바산 대표)동문이 각각 1천만원을, 이황(62/66식공·일광무역(주) 대표)동문이 500만원을 약정하는 등, 총 3,200만원이 약정되어 후배사랑 식품공학과 발전기금 조성사업에 동참하는 동문들의 참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10월 식공인의 날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문학세계 시부문 신인문학상 수상 김도각 스님

김도각(00불원) 스님이 '저녁놀' '바라보기' '바람 거두세' '한얼의 빛' '엄마의 가슴'등으로 문학세계 시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김도각 스님의 시에 대해 "깨달음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글문의 영감이 남다른 에너지가 배어 있고 오랫동안 습작기를 통하여 이미 달관한 경지에 오른 자유인의 마음자세가 느껴진다"고 평했다.

김형곤 동문 하늘나라의 품에

시신은 가톨릭의대에 기증

"세상에 웃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인간이 동물에 비해 우월한 이유도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도 결국 웃고 살기 위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데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웃지 못하고 산다"

코미디언 김형곤(79/85국교·코미디언)동문이 지난 3월 11일 갑작스럽게 타계하면서 그가 남긴 '웃음의 철학'이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김 동문은 지난 3월 11일 오전 서울 자양동의 한 헬스사우나에서 목욕과 운동을 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김 동문은 숨지기 전날인 10일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 '형곤생각'에 '대한민국이 웃는 그날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웃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온 국민이 웃다가 잠들게 하라'는 부제를 단 이 글에서 "웃음은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웃음 곁으로 자주 가야 한다"면서 웃음을 잃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저녁 시간에 편성하는 방송사를 비판했다.

강도 사기 패륜 조폭 등의 어두운 내용을 다루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밤 10~12시에 편성해 국민들의 잠자리가 언제나 뒤숭숭하다는 얘기다.

김 동문은 또 "밤 10시 넘어서는 정치인들 얼굴이 절대 방송에 안 나오게 해야 한다"며 "한밤에 텔레비전에 나온 정치인들 때문에 잠을 설치고 가위 눌리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시사풍자 코미디의 새 장을 열었던 그는 시사개그를 통해 뼈있는 웃음을 선보여 주목받았고 의미있는 웃음으로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사오정' '오륙도' 등의 사회현실을 풍자하면서도 "사람과 식품 모두 유통기한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계발만 하면 유통기한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며 용기를 북돋웠다.

김 동문의 영결식은 3월 13일 오전 7시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대한민국 희극인장으로 치러졌으며, 시신은 가톨릭의대에 기증됐고, 유품 등은 경기도 고양시 청아공원에 안치됐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